

삼국사기(백제본기), 12월 21일(토)

자연재해(지진 등), 천문((일식 등), 전염병, 관직, 대외관계 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외관계의 경우 중원과의 조공 및 책봉관계에 대한 기록과 고구려, 신라, 백제 사이의 전쟁과 제휴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3국 사이의 관계와 더불어 말갈, 일본과의 관계도 기록되고 있다.

삼국시대 조공·책봉관계라는 제도의 특성과 실제로 중원과 3국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중원과의 조공·관계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에 대해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3국 사이의 전쟁과 제휴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며, 3국 이외의 말갈과 왜의 존재, 중원과의 관계 등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말갈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원(중국) ↔ 신라, <백제>, 고구려 ↔ 말갈, 왜, (낙랑, 마한, 탐라국 등)

<말갈과의 관계>

삼국시대 말갈이라는 존재의 의미와 백제와의 관계

말갈과의 관계는 주로 무력을 수반한 갈등의 관계

- 온조 8년 말갈의 침입
- 온조 10년 말갈의 북쪽 변경 노략질
- 온조 18년 말갈의 침입
- 온조 12년 말갈과의 전투
- 온조 38년 말갈의 술천성 공격
- 다루왕 3년, 4년 말갈과의 전투
- 다루왕 49년: 신라가 말갈의 침략을 받자 우리에게 글을 보내 군사 요청
- 초고왕 49년 말갈의 석문성 습격, 10월에 말갈이 강력한 기병으로 침범
- 구수왕 3년 말갈이 적현성 포위, 기병 8백명으로 격파
- 구수왕 9년 말갈의 북쪽 변경 침입
- 구수왕 16년 말갈의 우곡지역 침입 및 약탈
- 고이왕 25년 말갈 추장 나갈이 말 열필 현상
- 진사왕 3년 말갈과 관미령에서 전투
- 동성왕 4년 말갈이 한산성을 습격
- 무령왕 3년 “말갈이 마수책을 불사르고 고목성으로 진공해왔다”
- 무령왕 7년 고구려 장수 고로가 말갈과 모의해 한성을 치고자 횡악 아래로 나아와 주둔

<낙랑과의 관계>

낙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온조 4년 낙랑에 사신 파견 및 우호
- 온조 8년 낙랑 태수의 사신 파견을 통해 화친에 대한 항의, 낙랑과의 우호관계 단절
- 온조 11년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병산책을 습격해 깨뜨리고 약탈
- 온조 13년: 왕이 신하에게 한 말 “나라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우리의 변경 강토를 침범하니 평안한 날이 적다”
- 온조 17년 낙랑이 위례성 침범
- 고이왕 13년 “위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낙랑태수 유무, 삭방태수 왕준과 함께 고구려를 치자 왕이 그 빙 틈을 타서 좌장 진충을 보내 낙랑의 변경 주민들을 습격”
- 낙랑태수가 자객을 보내 분서왕(7년) 살해

마한과의 관계

- 온조 13년 마한에 사신을 파견하여 천도 통보
- 온조 24년 목책 건립으로 인한 마한과의 대립
- 온조 26년 왕의 언행 “마한이 점차 약해지고 위아래가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형세가 오개 갈 수 없으리라.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를 빼앗아 뒷날의 어려움을 면하는 것이 낫겠다”
- 온조 27년 마한 정복과 멸망

<왜와의 관계>

- 아신왕 6년 “왕이 왜국과 더불어 우흘근 맷고 태자 膺支를 볼모로 보냈다”
- 아신왕 11년 사신을 왜국에 보내 큰 구슬을 구하였다
- 아신왕 12년 왜국의 사신이 왔다
- 왜국에서 사신을 시켜 야명주를 보내오다
- 전지왕 14년 왜국에 사신을 파견해 흰 면포 10필을 보냈다
- 비유왕 2년 왜국의 사신이 왔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50명이었다

<신라와의 관계>

신라에 대한 공격

신라의 공격

신라로의 사신의 파견

- 화친 요청(다루왕 29년)
- 고이왕 53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 요청
- 비유왕 7년 사신을 신라에 보내 화친 요청

- 비유왕 8년 사신을 신라에 보내 좋은 말 두필 선사, 겨울에 신라가 좋은 금과 빛나는 구슬을 보내 답례
- 근초고왕 21년 사신을 보내 신라 방문
- 근초고왕 사신을 신라에 파견해 좋은 말 두필 현상
- 동성왕 7년 사신을 보내 신라 방문
- 동성왕 15년 시산을 신라에 보내 혼인 요청, 신라왕 이찬이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 성왕 26년 고구려 왕 평성이 漢와 함께 모의해 한수 북쪽의 독산성을 치자 왕이 사신을 보내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의 사신 파견
- 비류왕 34년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방문
- 성왕 3년 신라와 사절 교환

고구려와의 관계는 주로 전투 중심으로 기록

삼국 사이의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 삼국간 전쟁(전투)의 성격의 문제
- * 사신의 교환과 화친 등
- * 백제의 군사력과 무기 체계
- 온조 10년 정예 기병 1백명
- 온조 40년 강력한 기병 2백명

<중원과의 관계>

- 근초고왕 27년, 28년 사신을 晉에 보내 조공
- 근구수왕 5년 진에 조알하여 했으나 풍랑으로 무산
- 침류왕 원년 사신을 진에 보내 조공, 진에서 승려 마라난타가 진에서 와서 불교 기원
- 전지왕 2년 사신을 진에 보내 조공
- 전지왕 12년 東晉 安帝가 사신을 보내 왕을 사지절도도독백제제군사진동장군백제 왕으로 책명
- 비유왕 3년 사신을 송에 보내 조공
- 비유왕 4년 송 문황제가 왕이 다시 조공을 바르게 닦는다 하여 사신을 보내 冊文 으로 선왕 映의 작위와 칭호를 주었다
- 비유왕 18년 사신을 魏에 보내 표문을 올렸다

고구려로부터의 구원 요청 및 고구려의 천자에 대한 불손한 행태를 알리며 토벌을 요청하는 내용

위의 顯祖는 사신을 백제사신과 함께 파견하였고 조서 전달: 고구려와 백제의 반목

에 대한 견해, 백제의 토벌 요청에 대한 부정적 견해 피력

백제왕이 실망하여 조공 단절: “왕이 고구려 사람들이 자주 변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위에 표문을 올려 군사를 청했던 것인데 이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왕이 그를 원망해 마침내 조공을 끊어버렸다”(517~524)

- 문주왕 2년: “사신을 보내 송을 방문하게 하였는데, 고구려가 길을 가로막아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 동성왕 6년: 왕이 南齊의 태조 소도성이 고구려 王 巨璉을 표기대장군으로 책봉했다는 말을 듣고는 사신을 남제에 보내 표문을 올리고 속국이 되기를 청하자 남제에서 허락하였다. 내법좌평 사약사를 남제에 보내 조공하게 했는데, 사약사가 서해 가운데 이르렀을 때 고구려 군사와 마주쳐서 나가지 못하였다”

- 동성왕 8년 사신을 남제에 보내 조공

- 무령왕 12년 사신을 梁에 보내 조공

- 무령왕 21년 사신을 양에 보내 조공, “이에 앞서 표문을 올렸으되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리고 비로소 우호를 맺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다시 강국이 되었던 것이다”

양 고조가 조서로 왕을 책봉해 말하기를 “행도독백제제군사진동대장군백제왕 餘隆은 바다 밖의 번방을 지키면서 멀리 조공을 바치고 직분을 다해 그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르게 되니 내가 이를 가상히 여기는 도다. 마땅히 옛법전에 의거해 이 영예로운 책명을 수여하여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영동대장군으로 삼는다”

- 성왕 2년 양 고조의 조서: 왕을 지절도독백제제군사수동장군백제왕으로 책봉

- 성왕 19년 “왕이 사신을 양에 들여보내 조공하고 겸하여 표문을 올려 『毛詩』 박사와 『涅槃經』 등의 經義 및 工匠, 畫師 등을 요청했더니, 양에서 이를 들어주었다”

- 성왕 27년 “왕이 양나라 수도에 반란의 적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신을 보내 조공하게 하였다. 사신이 그곳에 이르러 성과 궁궐이 황폐하게 무너진 것을 보고 모두들 대궐문 밖에서 소리내 울자, 길가던 사람들이 보고는 눈물을 뿌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 위덕왕 14년 사신을 陳에 보내 조공

- 위덕왕 17년 고씨의 北齊 後主가 왕을 사지절시중거기대장군대방군공백제왕으로 임명

- 위덕왕 18년 북주의 후주가 또다시 왕을 사지절도독동청주제군사동청주자사로 삼았다

- 위덕왕 19년 사신을 북제에 보내 조공

- 위덕왕 24년 사신을 陳에 보내 조공, 사신을 宇文氏 의 北周에 보내 조공

- 위덕왕 25년 사신을 우문씨의 북주에 보내 조공

- 위덕왕 28년 사신을 수에 보내 조공, 수 고조가 조서를 내려 왕을 상개부의동삼사대방군공으로 임명

- 위덕왕 29년 사신을 보내 수에 보내 조공

- 위덕왕 31년, 33년 사신을 진에 보내 조공
- 위덕왕 36년 수가 陳을 평정,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진을 평정한데 대해 축하
수 고조가 흡족하게 여기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자주 사신을 보내
와서 서로 직접 살살이 알려야만 할 것인가? 이제부터 이후로는 모름지기 해마다
들어와 조공할 것은 없고 나 역시 사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왕은 의당 그 점을
염두에 둘 일이다"

위덕왕 45년 왕이 장사나 왕변나를 수에 보내 조공

"왕은 수가 요동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수나
라 군사의 길잡이가 되기를 청하였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지난날 고구려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신하로서의 예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장수에게 명령해 그들을 토벌하게 했으나 高元의 조정에서 임
금과 신하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하면서 죄를 청하기에 내가 이미 용서했는지라 정
벌을 일으킬 수가 없다"

고구려가 그 일을 고깝게 여겨 군사를 몰아서 국경을 침략하였다

- 무왕 8년 한솔 여문진을 수에 보내 조공, 좌평 王惠林을 들여보내 공물을 바치게
하면서 겸하여 고구려 토벌을 요청, 양제가 이를 허락하고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라고
하였다.
 - 무왕 9년 사신을 수에 보내 조공, 수의 문림랑 배청이 왜국에 사절로 가면서 우리
나라 남쪽 길을 경유
 - 무왕 12년 사신을 수에 보내 조공, "왕이 국지모로 하여금 수에 들어가 군사의 일
정을 묻게 하였다. 양제가 기뻐해 상을 후하게 더해주고 상서기부랑 석률을 보내와
왕과 상의하게 하였다"
 - 무왕 13년 "수의 6군이 요수를 건넜다. 왕은 국경에서 군비를 엄중히 하고서 수를
돕는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 무왕 22년 사신을 당에 보내 果下馬를 바친다
 - 무왕 25년 대신을 당에 보내 조공, 당 고조가 사신을 보내와 왕을 대방군왕백제왕
으로 책봉, 7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
 - 무왕 26년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
 - 무왕 27년 사신을 당에 보내 明光鎧를 바치면서 고구려가 길을 가로막고 상국에
입조하지 못하게 한다고 호소
- 고조가 조서로 "우리와 고구려를 타일러 원한을 풀라고 하였다", 12월에 사신을 당
에 보내 조공
- 무왕 28년 왕의 조카 복신을 당에 보내 조공
- 태종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신라왕 김진평은 나의 번신이요 왕의 이웃이거늘,
그대가 매양 군사를 보내 정토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하니 무력으로 올려대고 잔
인한 짓에 편안한 것은 내가 바라는 바에 매우 어그러지는 것이다. 내가 이미 왕의
조카 복신 및 고구려와 신라의 사신들을 마주 대해 서로 화친하도록 조칙하여 서로

화목할 것을 기약했으니....즉시 전쟁을 그만둘 일이다”

왕이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사죄하였다. 비록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정작 서로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예전과 마찬가지였다

- 무왕 30년, 32년, 33년, 37년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
- 무왕 38년 사신을 당에 보내 철제 갑옷과 아로새긴 도끼를 바쳤다. 태종이 사신을 넉넉하게 위로하고 비단 도포와 채색 비단 3천단을 주었다.
- 무왕 40년 사신을 당에 보내 금제 갑옷과 아로새긴 도끼를 바쳤다.
- 무왕 41년 자제들을 당에 보내 國學에 들여줄 것을 요청
- 무왕 42년 무왕이 죽었는데 사신이 당에 들어가 소복을 입고 표문을 바쳤다. 황제가 현무문에서 애도식을 거행하고 조서를 내렸고 광록대부를 추증하고 부의를 매우 후하게 내려주었다
- 의자왕 원년 당 태종이 사부랑중 정문표를 보내 왕을 주국대방군왕백제왕으로 책명, 사신을 당에 보내 감사의 뜻을 밝히고 겸하여 방물을 바쳤다
- 의자왕 2년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
- 의자왕 3년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

왕이 고구려와 화친을 맺고 신라의 당항성을 빼앗아서 당에 입조하는 길을 막고자 계획하여 마침내 군사를 발동해 신라를 쳤더니 신라와 덕만이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 요청, 왕이 이를 알고 군사 철수

- 의자왕 4년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 태종이 사농승 상리현장을 보내 두나라에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 의자왕 11년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

당 고종이 조서를 보내 왕을 타일렀다. “지난 해 고구려와 신라 등의 사신들이 함께 와서 입조했을 때 내가 이같은 원한을 풀고 다시 경애와 화목을 돈독히 하라 했더니....청하읍건대 백제에 조칙을 내리시어 침탈해간 성들을 되돌려주게 하소서...왕은 겸병한 신라의 성들을 모두 그 본국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 의자왕 12년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

신라와 당의 연합군, 백제의 멸망 과정 및 부흥운동에 대한 기록

<탐라국>

- 문주왕 2년 탐라국이 방물을 바쳤다
- 동성왕 20년 “왕이 탐라가 공물과 조세를 바치지 않은다 하여 친히 치고자 무진 주에 이르니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하므로 그만 중지하였다”

<동명묘에 대한 참배의 기록>

- 다루왕 2년, 책계왕 2년, 비류왕 9년, 전지왕 2년 등 동명묘에 참배